

안철수 원톱이나 김한길·천정배 포함 투톱이나



국민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선릉로 D-CAMP에서 열린 핀테크 기업인 간담회를 마친 뒤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내달 2일 창당 앞두고 당대표 추대 고민

천정배, 당대표 대신 공천심사위원장 맡을 수도

국민의당이 창당을 코앞에 두고도 당대표를 누구로 추대할지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며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중량감 있는 외부인사를 영입해 당대표를 추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구인난으로 여의치 않자 내부에서 안 의원을 단독대표로 세울지, 공동대표 체제로 갈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애초 국민의당은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 거물급 인사를 영입, 당대표로 세워 '안철수 사당화' 논란을 차단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진전이 없어 흐지부지되는 분위기다.

28일 당 핵심관계자는 “내달 2일 전까

지 정 전 총리를 영입하는 건 지금 봐서는 쉽지 않다”며 “거물급 영입도 그때까진 없을 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창당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더 늦기 전에 내부 인사로 대표 체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

안 의원 측근 그룹에서는 안 의원이 단독 대표를 맡아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양상이다. '안철수 신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창당을 주도해온 안 의원이 책임과 함께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 지지율이 하락하자 안 의원 지지도를 바탕으로 '안철수 마케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반면, 의원 그룹은 '안철수 사당화(私黨化)' 우려에 따라 '원톱' 대신 안 의원을 포함한 '투톱' 체제를 주장하는 쪽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 개인 브랜드만 강조되면 당 외연 확장에 한계가 있고 무게감 있는 외부인사가 참여할 명분이 약해진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누가 안 의원의 파트너가 될지 여부다.

일단 천정배 의원이 '당 대 당' 통합을 통해 유력 후보로 떠오른 상태로, 천 의원 측도 지분 논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대표직에 대한 기대를 감추지는 않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호남지역 현역 의원들은 천 의원이 대표가 될 경우 '뉴DJ'를 내세우며 공천 '물갈이'를 시도할 것이라 예상 때문에 거부감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김한길 의원을 공동 대표 후보로

꼽는 흐름이 있으나, '안철수-김한길' 체제가 옛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을 연상시킨다는 점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고 천 의원이 이를 수용할지도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총선이 임박한 만큼 선거 경험이 많은 김한길 의원을 단독 대표로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안 의원 측이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천 의원은 당대표 대신 '호남 공천'을 위해 공천심사위원장직 등을 맡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국민의당은 오는 29일 기획조정 회의에서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체제 문제와 내달 2일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채택할 정강정책 및 당헌당규 등 논의에 착수한다. 이어 내달 1일께 중앙당 운영위원회의를 열어 중앙당 창당대회에 올릴 안건을 최종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의화 의장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 발의 “여수·순천·광양 통합 돕겠다”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건 재적의원 과반·소요기간 75일로

정의화 국회의장이 28일 자신의 중재내용을 담은 국회법(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직접 대표 발의, 국회에서 공식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안건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의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병목현상” 해결방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15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공동발의에 서명한 의원은 새누리당 이재오·유승민·정두언 의원과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김동철·황주홍 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접 대표 발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정 의장의 국회법 개정안은 현행 패스트트랙 제도 손질에 무게가

실려 있다.

현행법에서는 재적의원 60%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고 상임위에서 본회의 표결까지 심사기간도 최소 330일이 걸리지만 정 의장안은 신속처리안건 지정요건을 재적의원 과반수로 낮추고, 소요기간도 75일로 단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어제(27일) 더민주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에게 내일(29일) 운영위를 열자고 요청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무성 새누리 대표 여서서 특강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8일 여수에서 지역 경제인들을 상대로 특강을 진행했다.

그는 이날 여수의 한 호텔에서 여수·순천·광양상공회의소가 공동주최하는 강연회에 연사로 참석했다. 강연회엔 여수·순천·광양상공회의소 회장 등 상공인 300명이 참석했다.

그는 “광양만권 경제와 지역 간 상생방안”이라는 주제의 강연회에서 “메가폴리스가 국제경쟁력을 갖는다”면서 “여수·순천·광양의 통합을 위해 도움을 요청한다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과거 내무부 차관 시절 여수시·여천시·여천군 등 ‘3려 통합’을 지원했다. 당시 반대가 심했지만 통합을 이뤄



내 오늘에 이르렀다”며 “도시가 더 커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면 국제경쟁력도 갖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연에 앞서 그는 여수·순천·광양상공

회의소 회장 등 상공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남지역의 경제현황 등에 대해 얘기를 전해들은 뒤 “호남지역 주민들이 상대적인 피해의식과 박탈감에 젖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를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호남에 애정이 있다. 피해의식과 박탈감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어려운 시기지만 과거 상공인들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여수에 왔다”고 덧붙였다. /이종행기자 galee@

4·13 총선 현장

“지역서 검증된 인물 과감한 발탁 필요”

강기정 더민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기정(광주시 북구갑) 의원은 28일 당(黨) 인재 영입과 관련, “당의 인재영입이 성과를 이여하기 위해선 시야를 넓혀야 한다”면서 “지역의 풀뿌리 조직에서 훈련되고 검증된 인재들에 대한 과감한 발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정당은 인재 영입보다는 인재 육성이 먼저다. 영입은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현재 우리 당은 발굴과 육성에 대한 고민이 매우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풀뿌리로부터 활동했던 많은 인재들이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지는 않을 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역에서 풀뿌리 조직을 키우면서 훈련되고 검증돼온 수많은 인재들을 과감하게 발탁해 당의 기초 체력을 살피우는 전략도 심사숙고해야 할 과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시설하우스 등 폭설피해 농가 현장 방문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국민의당 권은희(광산구 을) 의원은 28일 지역 내 시설하우스 폭설피해 현장을 방문, 피해 실태를 점검한 뒤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그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번 폭설로 시설하우스가 완전히 무너진 것을 봤는데, 마음이 아팠다”면서 “관계기관이 주민의 입장에서 근본적인 피해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이번 폭설피해를 입은 시설하우스 농가는 15곳(완파 10곳·반파 5곳)”이라며 “시설하우스 피해 농가에 대한 피해보

상에 앞서 무너진 시설하우스 쇠파이프 철거문제가 피해 농민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데, 관계기관이 근본적인 피해대책을 수립해 실행하라”고 요청했다.

정용화 광주 서구갑 공식 출마 선언

MB(이명박)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정용화 광주시 서구 갑 예비후보는 28일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의당을 중심으로 한 정권교체와 한국 정치의 담대한 변화를 위해 한 몸을 바치겠다”며 “정권교체를 넘어 정치교체를 위해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 연설기록 비서관 경력으로 국민의당 합류 당시 일어난



정제성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특히 “애초 한나라당을 선택한 것은 지역발전을 위해 정부 여당과의 채널 역할을 하기 위해서였다”며 “일부에서는 저를 한나라당 출신이라고 비판하지만 전국적인 관점에서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동구 역사·문화·자연·관광자원 성장동력으로”

오형근 광주 동구청장 예비후보

오형근 광주시 동구청장 재선거 예비후보는 28일 동구의 역사·문화·자연·관광자원을 연계해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동구 3대 발전전략 중 하나인 ‘자원 모아’에 대해 설명한 뒤 “그간 이들 자원을 연계하지 못한 채 따로따로 사업을 진행,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했



다”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총장·급남 산권, 대인·남광주전통시장, 무등산국립공원 등의 자원을 창조적으로 연계해 동구발전의 축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1일 동구 미래발전 3대 전략으로 ‘모아모아 전략’을 제시했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체육관련시설 2층 상가매매

(에어로빅, 헬스, 당구장, 체육관, 기타) 넓은주차장 용봉, 문흥지구 중심상가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2칸)
- 매 7억5천만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전남대 부근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 성업중 직영하실분 환영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급매 조정가)

복성중 28회 친구 찾기

- 상균이, 호승이, 재준이와 28회 졸업생 690명을 찾습니다.
- 복성28회를 아시면 신고해주세요 (매월 28일 정례모임중)

김행곤(복성28회 살림꾼) 010-3379-2209

www.솔향기맑은터.com

솔향기맑은터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전문점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뼈는날 화, 목, 토, 일
- ▶ 불뼈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 ▶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떡갈비정식, 솔향기정식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